

광주여대 식품영양학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 출전...한식진흥원 이사장상도

광주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영양식품학과(성인)가 2025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광주여대는 식품영양학과와 영양식품학과 학생들이 지난 16~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한국 김치를 페어링한 글로벌푸드' 팀으로 출전해 단체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또 식품영양학과 김철원(4년)·김민주(3년)·남예니·정영진·전수영(대학원), 영양식품학과 박은정·박희정·박영재(1년) 등 8명은 개인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사)한국음식관광협회가 주최·주관하

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한식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후원했다.

한국 음식의 관광 자원화와 한식 세계화를 위해 한국음식관광박람회 기간 중 열린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음식박람회로 3000여명의 조리사와 학생들이 10개 부문 50여개 분야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김지현 교수는 2001년부터 25년간 광주·전남 조리인과 식품관련학과 대학생들의 요리대회 지도를 맡아 20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교수는 "올해는 생생한 시를 활용해 김치 페어링 콘텐트를 구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음식 제조와 플레이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시화작업을 줄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했다"며 "지역의 향토음식이 글로벌 음식의 메카로 자리매



광주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영양식품학과(성인)가 2025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김하도록 다양한 김치 제조법을 소개하고 이를 새롭게 페어링한 글로벌 음식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광주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년 연속 광주 김치를 주제로 한 음식

을 출품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총 30여개의 상을 휩쓸었다.

김민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PEOPLE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구례군, 압화대전 시상식 성료 신정옥 작가 '사랑의 굴레' 대상

구례군은 최근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제24회 대한민국압화대전'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압화대전에는 11개국에서 421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중 13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 종합 대상은 신정옥 작가의 작품 '사랑의 굴레'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의 힘을 주제로 깊은 울림을 전하며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제4회 상상누름꽃채움경연대회와 제3회 지리산식물세밀화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려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 깊은 시간이 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압화는 자연과 예술이 융합된 창의적인 분야"라며 "앞으로도 압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례=전창재 기자 dong-eah@gwangnam.co.kr

밝은안과21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밝은안과21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증평가기구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밝은안과21병원은 4주기 인증을 위해 지난 3월 18~21일 4일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문조사단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았고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총 4개 영역, 507개 항목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특히 2013년 1주기, 2017년 2주기, 2021년 3주기에 이어 4회 연속 인증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의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갖춘 안과 전문병원임을 공식 입증했다.

김주영 대표원장(사진)은 "이번 4주기 인증 획득은 전 직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밝은안과21병원은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안과전문병원에 5회 연속 지정되며, 국내 안과 분야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대, 도시재생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상'

대학원 도시재생·부동산학과...현장 실천적 대안 제시

광주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부동산학과가 최근 단국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 한국도시재생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토연구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정비형 재생을 위한 민간 참여 방안'을 주제로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광주대 대학원 도시재생·부동산학과 리빙랩팀 연구진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자립형 액티비시니언어온 공간조성 리빙랩 프로젝트'로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수상작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립형 액티비시니언어온 모델을 제안한 프로젝트다.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보존하면서 상호 돌봄이 가능한 복지공간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커뮤니티 거점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광주시의 도시재생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으며, 도시재생 현장에서의 실천적 대안을 학술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작의 주저자는 이국형 박사과정생, 지도교수 윤영담 특임교수, 공저자(박사과정) 이현운·황봉석·안형주, (석사과정) 김문기·김택현·정해성·김영호·류도은·김득환 등 다수의 석·박사 연구진이 참여했다.

광주대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및 고령자 주거복지 모델 개발을 위한 학제 간 융합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순천 별량면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보금자리'

민·관 협력...노후 주택 주거환경 개선

순천시 별량면(면장 허성무)은 최근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사랑의 보금자리 입주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가정은 기존에 거주 중이던 노후 주택이 심하게 기울어져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고, 안전상의 우려도 제기돼 왔었다.

이에 순천시장에인종합복지관과 지역 건설업체, 별량면마을보장협의체, 순천경찰서 등 민·관 기관이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해당 가정은 지난 2023년 하반기 방송을 통해 사연이 소개돼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받았고, 방송 출연을 계기로 2024년 9월까지 총 250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모금된 후원금은 기존 주택의 철거비용과 신축 조립식 건물을 위한 자재비로 사용된다.



허성무 별량면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한나 순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택이 완공되기까지 우려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으신 지역사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 조승환씨, '얼음 위 맨발 서있기' 세계기록

5시간 10분 달성...종전 기록 5분 경신

광양시와 여수관광진흥공사 홍보대사인 조승환 국제환경운동가가 '얼음 위 맨발 서있기'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조승환 국제환경운동가는 최근 충북 제천시 제1축구센터에서 '얼음 위 맨발 서있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해 5시간 10분을 기록했다.

조 운동가의 종전 신기록은 5시간 5분이었다. 이번 '얼음 위 맨발 서있기' 퍼포먼스에는 김동주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양향자 전 국회의원, 장옥권 중국 세계일대일로공소연맹 주석 등 1800여명이 참석해 세계 신기록 달성을 지켜봤다.

조 운동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 도전마다 기록을 5분씩 연장하며 퍼포먼스를 지속하고 있다"며 "단순한 기록 경신을 넘어 전 세계에 환경 위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환 운동가는 오는 31일 부산에서 열리는 넷제로(Net-Zero) 행사에 초청돼 53회째 맨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양=김극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화순전남대병원, 암 환자 통증 캠페인 전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병원 1층에서 '암성 통증, 참지 말고 말씀하세요'를 주제로 2025년 통증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주관으로 암성통증이 단순한 불편이 아닌 치료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환자 스스로 통증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병원을 찾은 내원객 3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암성통증에 대한 인식개선, 통증관리교육 안내, 암성통증 상담부스 운영, 환자용 통



중 조절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자문형호스피스팀과 소아청소년緩和의료팀도 홍보활동에 동참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게시판

- 결론** △류선용(법무부의료과)·양호성(순천시청 관광과장) 씨의 아들 시형(미래기계기술)군, 김삼진(KT 부장)·이항란씨의 딸 혜빈(순천 평화병원) 양=6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길 94 아모르웨딩홀 4층 그랜드볼룸.
- 알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곡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신창동 보은서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 부음** △조남순씨 별세, 이정기·정식·정희·애경·시연씨 모친상, 정광현(전남 순천시 부시장) 씨 장모상=20일 오전, 광주 VIP장례타운 501호, 발인 22일 오전 9시, 062-521-4444.

은세 (음력 4월 24일)

- 48년생 건강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60년생 여려가지 축면으로 가능해 보라
- 72년생 숨겨져 하지 말고 그대로 대하자
- 84년생 계획하는 대로 이뤄진다
- 96년생 소비하지 말고 아껴 두라
- 51년생 송사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63년생 지나친 집착은 망칠 수도 있다
- 75년생 받아들이는 것이 니를 것
- 87년생 직원의 말을 들어라
- 99년생 속 사정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 54년생 불화가 생겨 갈등을 겪을 것
- 66년생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78년생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 90년생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57년생 구분을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 69년생 문서 운세가 가히 좋지 않다
- 81년생 필연적인 관계이다
- 93년생 말을 귀 기울여 들어라
- 49년생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을 명심
- 61년생 자녀에 대한 집착은 금물
- 73년생 심판하는 것은 길하지 못하다
- 85년생 배우자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 것
- 97년생 조력자를 찾아보라
- 52년생 배우자로 인한 근심수가 있을 것
- 64년생 제대로 실행한다면 결과가 신출한다
- 76년생 참여가 후회할 것
- 88년생 늦어도 생각해 보라
- 55년생 사소한 말 한마디가 일을 놓친다
- 67년생 부탁한 일이 있었다면 기대하지 마라
- 79년생 상수 거점을 마련하는 전환기
- 91년생 남매를 당하지 않으면 언쟁을 삼가
- 58년생 정리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 70년생 현상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라
- 82년생 이치이나 취직 등은 어려운 운
- 94년생 무의미한 것은 과감하게 탈피하라
- 50년생 주변 사람들이 이롭게 한다
- 62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74년생 부동산 거래는 철저하 실력보라
- 86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진전이 보인다
- 98년생 풀리지 않고 문제만 쌓이는 운
- 53년생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포기하라
- 65년생 체면을 의식하면 아무런 일도 못한다
- 77년생 시대에 부합한 일이 있었다
- 89년생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 56년생 욕심도 줄지만 휴식이 필요
- 68년생 문서와 명예가 함께 하겠다
- 80년생 근분 원안부터 살펴라
- 92년생 스스로를 다스리라
- 59년생 무모한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 71년생 문세가 없는데 받다가 실패
- 83년생 마음을 바로잡고 살아야 한다
- 95년생 서둘러야만 이뤄질 수 있을 것

| | |
|------|--|
| 편집기자 | |
| 데스크 | |
| 당직자 | |